



제목	The Legacy of Gaziantep to World Cultu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Kentbank
발행일	1999.
저자	Nezih Basgelen
출판도시	Istanbul
페이지수	204
ISBN 또는 ISSN	978-9756899342

내용 요약

이 책은 터키 중남부, 시리아와의 국경 부근 유프라테스 강 연안 지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알려진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에 위치한 가지안테프(Gaziantep)의 역사와 이 지역에서 발굴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되는 유물들과 더불어 건축예술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가지안테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대의 통상로 가까이에 건설되었으며, 최근의 발굴 작업 결과 일찍이 BC 4000년경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기 파편들이 나왔다. 고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는 돌루크(고대에는 돌리체로, 최고신 돌리체누스의 성지)와 킬리스(아시리아어로는 킬리시), 히타이트 신왕국의 도시 사말(진지를리휘위크)의 옛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중세에는 함타프라고 불렸으며 시리아로 통하는 통로들을 지키는 요새 역할을 했다. 1183년 투르크에 점령당했으며 그뒤 투르크멘·아랍인·몽골인·티무르인들에게 지배를 받았다.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어 아이인타브(아랍어로 ‘화창한 봄’이라는 뜻)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1919년 영국에, 1921년에는 프랑스에 점령당해 지배를 받았다. 가지안테프는 유럽 제국의 점령에 대항한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근거지였다. 1922년 이 지역을 되찾자 터키 공화국을 세우는데 힘쓰고 있던 무스타파 케말(뒤에 아타튀르크라고 함)은 터키인의 용맹스런 저항을 기리는 뜻에서 가지안테프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 붙였는데 터키어로 ‘가지’는 ‘이슬람 전사(戰士)’를 뜻한다.